

청소년 단신

청담정보고 특성화교 지정

평택 청담정보통신고가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3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특성화고교로 지정됐다. 이에 청담정보통신고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학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등 록금도 특성화고는 교육감이 결정하거나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일임할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학생 선발도 경기도에서 전국단위로 모집할 수 있어 우수한 인재를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근우 교장은 "일반 기업체들과 연계해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 현장에서 지장없이 일할 수 있도록 실무 교육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종교활동의 영역도 넓혀 학생들에게 불법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개최

목동청소년회관은 31일 목동 행복나눔 세상 백화점 야외무대에서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10개 팀에서 50여명의 중고생들이 참가한다. 1부는 댄스경연대회, 2부는 축하공연과 시상식이 열린다. 또 경연대회 중간에 관람객들을 위한 '풍선아트', '댄스춤 시연' 등이 진행된다.

목적사업팀 이상현씨는 "3년전부터 시작한 목동청소년회관 댄스동아리 열기가 높아져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02)2646-6815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 개강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월·금요일 저녁 7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제17기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과정'을 시작한다. 교육내용은 이론을 비롯해 교리, 댄스, 음악, 생활, 게임, 야외활동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과정을 수료하면 2급 지도자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02)738-7860

성년 맞은 대불어 부산지구

기념법회 등 각종행사 '풍성'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부산지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하나인 '전래놀이 한마당'. 어린이들이 '굴렁쇠 굴리기'를 하며 전래놀이를 배우고 있다.

발자취 모은 '현대어린이포교사' 봉정식

사물놀이·찬불가 공연, 지도자 표창도

1982년 3월 27일 부산의 어린이 포교에 불 바람이 불었다. 소림사, 법문사, 미륵사, 옥련선원 등 12개 사찰의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들을 중심으로 부산불교어린이교사회가 창립되면서 어린이 포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후 부산불교어린이교사회는 현재 어린이 포교 활성화의 중심 축인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의 모태가 되었고, 부산지역의 새싹 포교를 선도하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회장 지원이)가 부활로 자체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3월 27일은 부불어가 창립된 지 정확히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부불어는 이날 양정 청소년회관에서 20주년 기념법회를 열어 자축의 자리를 마련하고, 성년을 맞은 부불어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부불어는 어린이 포교 20년사를 모아 정리한 책자 <현대어린이포교사> 봉정식과 함께 꾸준히 활동해온 지도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해 회원들을 격려한다. 특히 통도사부산포교원 어린이들의 사물놀이 공연, '소리공양'의 찬불가 공연, 현역 지도교사들의 찬불

가와 울동 등 다양한 불거리도 마련된다.

어린이 포교분야의 개척자요 선구자였던 부불어가 20년 동안 펼쳐온 사업은 어린이를 위한 포교사업과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들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대별된다. 부불어에 의해 시도됐던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전국 어린이 포교를 이끄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한 것에서 부불어 탄생을 어린이 포교에 미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어린이 법회 통일교재인 '연꽃' 지나 전국의 지도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등은 모두 부불어에서 비롯된 성과물이다. 특히 지도교사 양성 전문 교육기관으로 어린이 포교의 산실이 되고 있는 대한불교교사대학도 1985년 열렸던 어린이교사대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밖에도 부불어가 새싹 불자들을 위해 펼쳐온 연꽃 문화제와 전래놀이 한마당은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사업들로 새싹불자들을 불법의 세계로 이끄는 견인차가 되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열리는 연꽃 백일장과 사생 대회, 그 우수작품을 모아 펴내는 작품집 <연꽃 마을>은 어린이 불자들의 맑고 고운 눈으로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성년을 맞은 부불어는 앞으로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터넷을 통한 지도자 교육과 정보교환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사찰별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 법회를 지원하면서 현재 40개팀 지회 수를 늘리고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후원도모도 조직할 방침이다.

최미선 부불어 사무부장은 "전국에서 지회별 연회가 가장 잘되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 구별 합동법회, 소규모 프로그램 지원 등 부산만의 특색을 살린 성숙된 포교를 펼쳐겠다"고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a.com

불교 이래서 좋다

박지영 한양대 경제학과 1년

"구속과 강요가 없는 종교"



불교는 결핍없는 종교라는 생각이 든다. 믿음을 강요하거나 절에 안간다고 해서 눈총 받지 않는다. 말 그대로 자유가 존중받고 구속이 없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불교가 좋다.

음악을 하는 나는 어느 한 곳에 얽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절에 나가 기도하고 활동하는 불교의 신생활은 더욱 내마음을 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특히 나는 무슨일을 하든지 내 맘에 내키지 않는다면 열심히 하질 않는다. 사찰에 나가는 것도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루어졌지만 자라면서 불교는 구속받기 싫어하는 나의 성격에 딱 맞아 누가 가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절에 다녔다.

물론 이런 자율적인 측면이 포교적인 관점에서 따져보면 다른 종교에 비해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교의 이런 자율성 때문에 불교를 좋아하고 절에 나가는 신세대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도 완전한 신세대는 아니지만 요즘 대분 신세대들은 나처럼 구속받길 싫어한다. 그래서 가끔씩 절에 나와 친구들과 놀고 신생활하는 이들이 꾸준히 법회에 참석하는 친구들보다 의외로 많다.

나도 사찰에서 음성공양을 통한 포교활동을 하기전까지 그런 불자들중의 하나였다. 안산 '천수사'에서 만든 록그룹 '지장보살'의 리더로 주자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꾸준히 절에 나가게 됐다. 음악을 통해 내내 친구들과 부처님의 법음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신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지금은 잠시 개인적인 일이 있어 활동을 쉬고 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자율을 존중해 주는 사찰 덕분에 나는 떠나 있어도 마음이 편하다. 언제든지 가도 따뜻이 반겨 줄 사찰이 있기에...

담배를 끊으시다

병영에도 '금연펀드'

병영(兵營)에도 '금연펀드'가 만들어졌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 56통신지원대는 지난 1월 '금연펀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대대장 손영학 중령의 제안으로 만든 이 펀드에는 장교와 부사관이 5만 원, 병사는 3박4일의 휴가를 걸고 가입하고 있다.

6개월동안 담배를 한 개비라도 안피는 금연에 성공하면 이 펀드에 가입한 장교와 부사관은 '5만원 + 이익배당금 + 2박3일의 특박'을 받아갈 수 있다.

만일 실패하면 5만원을 날리게 된다. 또 병사들이 성공할 경우 '3박4일 휴가 + 이익배당휴'

가 + 3박4일 특박'을 받게 되고 실패하면 걸었던 휴가를 금연 성공자에게 내줘야 한다.

특박은 대대장이 '성과급'으로 내놓는 것이다.

처음 이 펀드를 만들때는 28명이 가입했으나, 금연 성공률이 높아지자 모두 36명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금연에 실패한 사람은 단 2명뿐이다.

손중령은 "여러 차례 금연운동을 벌였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 금연펀드를 만들었더니 금연율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금연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 펀드에 가입하려는 장병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제공)

성과급 장교 5만원·사병 3박4일 휴가

네티즌 불교 동아리 순례

세이클럽 카페 '청년불교 우리사랑'

불교·삶의 의문 속시원히...

매달 지역별 오프라인 모임

"청년불교란 '생동하는 불교'란 뜻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법회를 봉행하는 생활인의 불교를 뛰어넘어가고자 합니다."

세이클럽 불교동호회 '청년불교 우리사랑' (대표이사 이성학, http://club.seyclub.com/@lotus)에 접속하면 삶과 불교에 대한 의문이 속 시원히 풀린다.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도 별 거리낌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차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2000년 1월 7일 개설된 이래 꾸준히 회원이 늘어 지금은 회원수만 3312명. 세이클럽 인증동호회 및 인기 동호회로도 선정된 기록의 동호회다.

전반적인 운영은 대표이사 이성학 씨가 맡고 있지만 세부 운영은 7명의 부사장이 서울, 경북, 전남, 경남 등으로 나눠 지역관리, 동호회 기술 운영지원 등을 담당하며 활동하고 있다.

청년불교 우리사랑은 큰스님들의 법문을 담은 금주의 법문, 성철스님 시봉일기나 100문 100답 등의 교리문답집인 기획연재물이 있고, 봉사활동 장소를 소개하는 자비와 봉사, 초심자 코너, 회원들의 세상 보는 관점을 알 수 있는 바른 세상 만들기, 젊은 날 인생상담 등의 코너가 있다. 자료실에는 수지



◇ '청년불교 우리사랑'의 메인화면.

독송자료실, 교리기타자료실, 도량불교사이트 등 다양한 불교자료를 초심자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청년불교 우리사랑은 한달에 한 번씩 각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다. 단순히 만남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사찰을 정해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신심을 다지는 정진 모임이다. 또한 사찰 주변의 유물 유적답사도 함께 한다.

이한길 기자 sunggak@buddhapa.com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약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세량만을 탕제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만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기록,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속력을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위에 결체가 된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구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정강 데 진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든 물어보세요' 방영

**속심래정비법**

**六壬來情秘法**

**革新版**

이 책 한장(만 꺼내 갖고 다니면)이면 내 활인천역(活人天役) 스님 오행가, 신명제자(은 이제부터 걱정) 이 없다

전화오거나 찾아오거나 갈 때 그 시간만 보아 상대방의 비밀한 정황들을 미리 알게 되고 그것을 즉시 먼저 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육임비서(秘書)!

「이 책 한장(만 꺼내 갖고 다니면)이면 내 활인천역(活人天役) 스님 오행가, 신명제자(은 이제부터 걱정) 이 없다」

·좌정용 130만원 ·휴대용 150만원 ·증보판 35만원

전화 02)993-8680 · 996-3335 051)851-2349

입금처 : 한빛 813-041583-13-101 김영권

육임비서(秘書) 전문수강생

·매월별 전 12권 바인더 제본

·입금(카드구입 가능) 즉시배송함

도서출판 **卜問** 휴대용안정본

**제1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한국불교범음회에서는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초급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정, 범고) 다루는 법, 도량서, 쇠송, 상단예불, 불공식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정관음식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고급과정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사십구제, 예수제, 수륙제 (전통 범음, 범패)

● 모집인원 : 00명 (선착순)

● 개강일시 : 2002년 4월 22일 (음 3월 10일) 오후 2시

● 매주 강의 요일 : 수, 목 (오후 5시 - 7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은천동 원광사 회장경 강주 김도진 화상 사무실 051)554-1518

회 장 011)846-1518

총 무 011)816-3909, 054)372-3639

**한국불교범음회 의식교육원**